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파리 코리아엑스포서 글로벌 홍보

3일간 프로그램 소개·이벤트·강연 등 남도 미식 매력 알려
파리한식협회와 업무협약으로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15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엑스포(Korea Expo Paris 2025)'에 참가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집중 홍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코리아 엑스포는 파리 포트 드 베르사유(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에서 열렸다. 총 144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한류 확산과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행사로 진행됐다.

박람회 사무국은 엑스포에 참가해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의 전시관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남도미식의 고유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누리소통망(SNS) 구독 이벤트와 남도미식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는 등 남도미식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현장에서 파리한식협회(회장 이종선)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해 그 의미를 더했다. 두 기관은 박람회의 유럽 현지 홍보, 청년 미식 셰프 인재 양성, 전남 식재료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세계적 미식 강국인 프랑스에서 박람회를 소개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남도미식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

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입장권은 오는 30일까지 티켓링크와 네이버를 통해 40% 할인된 가격인 6천 원에 예매할 수 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유럽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타이완관광청 등 두 나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대만 관광교류회의에 참가해 박람회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국제행사로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신영길 기자



광양경제자청, 인도네시아 그레식 특별경제구역 방문

경제특구 개발경험 공유 및 상호방문 등 협력확대 공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광양경제자청, 이하 광양경제자청)은 6월 16일 인도네시아 그레식(Gresik) 특별경제구역을 방문하여 양 경제구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그레식 특별경제구역은 수라바야 항만 인근에 위치하고, 총 면적 29㎢의 개발면적에 금속가공, 화학, 에너지, 물류 등 우리청과 비슷한 개발 및 산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구충곤 광양경제자청장은 "우리청과 산업 및 개발환경이 유사하여 상호 경제특구 운영경험을 공유하고, 투자기업 상호 소개 및 기관간 상호방문 등 협력관계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쏘에띠오노(Soetiono) 대표는 "광양만권이 오랜 경제특구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입주기업 간 교류 및 상호 투자기업 소개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전날인 6월 15일 광양경제자청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 위치하고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 항만공사(PELINDO)를 방문하여 항만운영 현황과 개발계획을 청취하였다. 수라바야항은 광양항과 주 4항차 컨테이너선이 운행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양 지역간 물류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추천하고 먹깨비 쿠폰 받으세요

전라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손잡고 이달 8월 31일까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모집을 위한 1+1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11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수수료 정책 시행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서포터즈와 전남도민도 추천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신규 가입자가 추천인을 등록하면 가입자와 추천인이 함께(1+1) 자동 응모되는 방식이다.

당첨 규모는 총 1천81명, 1천500만 원 상당이다. 최대 추천인으로 등록된 1등에게는 먹깨비 상품권 100만 원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되는 2등부터 4등까지

신규·기존 가입자와 전남도민 모두 참여하는 이벤트
공공배달앱과 상생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는 각각 10만 원, 2만 원, 1만 원이 지급되며 당첨자는 9월 12일 발표된다.

또한 신규가입자에게는 먹깨비 쿠폰 3천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서포터즈 가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문 전남도 고흥사랑과장은 "전남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서포터즈와 도민께 감사사를 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공공성을 갖춘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에

게 전남의 매력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관광 활성화,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현재 57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남지역 640여 가맹점에서의 할인과, 남도장터 1만 원 쿠폰, JN투어 남도숙박 1만 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전용 누리집 (<https://namdo2.jeonnam.go.kr/jnsupports/>)과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채일 기자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북·해상가두리어류 등 6월 말까지 접수... 보험료의 90% 지원

전라남도가 고수온,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자료 분석 결과 올여름 바다 표층수온은 평년보다 1℃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식어가에서는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낚치, 뱀장어, 해상가두리 어류 등 일부 품종의 경우 고수온 피해 보상을 위해 고수온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품목은 전북(종자 포함), 낚치, 해상가두리어류, 뱀장어 등으로 6월 말까지

가까운 지구별 및 읍동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품종 확대 및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주계약 담보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전장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올여름 평년보다 수온이 높아 양식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재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천725어가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해 고수온, 호우 등 피해로 92건, 보험금 52억원을 지급받았다.

/우 인 기자

전남도-한전MCS,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지원 맞손

연내 30명 내외 채용해 안정적 선수활동 기반 제공

전라남도는 16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한전MCS(주)와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지원 업무협약을 하고, 연내 30명 내외의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성진 한전MCS 대표이사,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증진과 활동 지원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과 대회 참가 지원 등이

다. 전남지역 장애인 체육인의 안정적 선수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전MCS는 전기 검침과 수급, 전기차 충전기 유지 보수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 한전 검침원의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안부 살피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채용 분야를 다각화해 연내 30명 내외의 장애인 체육선수를 채용, 선수에게 안정적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운동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명창환 부지사는 "한전MCS는 전남의 여러 시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지원, 위기 가구 발굴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헌신한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사업 발굴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마를 곡성